

“천년 이은 전라도 생명력 담고 싶었죠”

‘전라도 천년’ 펴낸 김재 출신 김화성씨

역사·인물 등 다채롭게 풀어내
기자 은퇴 뒤 고향 위한 길 찾아
현장감 느껴지는 사진도 볼만



올해는 전라도 정도 1000년이 되는 해다. 조선팔도 중에서 두 번째로 생긴 이웃 경상도(1314년)보다 무려 296년이나 앞섰다. 당시 왕권을 강화하고자 했던 현종에게 전라도는 요충지나 다름없었다. 그만큼 문화·지리적 관점에서 전라도가 차지하는 위상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전라도는 수난과 수탈의 대상이라는 부정적인 측면에서 다뤄왔던 게 사실이다. 어떤 시인은 ‘전라도는 저주받은 땅’이라고까지 표현하기도 했다. 물론 낙후와 차별, 냉대의 역사를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이지만 이면에는 그만큼 ‘한’의 정서가 강하게 드러워져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전라도는 멋과 흥, 전통을 넘어 미래로 도약하는 생명과 희망의 땅이기도 하다. 전라도 정도 1000년을 맞아 전라도가 지닌 잠재력에 초점을 두고 전라도의 인물, 지역민들의 삶, 생각과 사상을 갈무리한 책이 발간돼 눈길을 끈다. 김재 출신으로 전직 일간지 기자였던 김화성 씨가 펴낸 ‘전라도 천년’(맥스미디어)은 전라도가 지닌 변방의 역동성에 주목을 한다.

최근 전화 통화에서 김화성 씨는 “어떤 이들은 전라도를 ‘반역의 땅’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불의를 참지 못하는 성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그보다는 지역민들이 지닌 생명력, 본질적 관점에서 지역의 내재하는 정점을 담아내고 싶었다”고 밝혔다.

33년을 일간지 기자로 생활하다 2015년 정년퇴직을 했다. 그는 “평생을 걸쳐서 이 책을 써왔다”고 말했다. 이유인즉 “책을 쓴 기간은 한 달밖에 안 걸렸지만 살아오는 동안 늘 전라도 정서를 체감하고 내면화했기에 그렇다”는 것이다.

김씨는 명문 전주고를 졸업하고 한양대 상대(75학번)에 입학한 뒤 줄곧 서울에서 살았다. 대학 재학 중에 학보사 기자로 2년 여간 활동하다 졸업 후에는 동아일보에 입사를 한다. 기자생활을 하는 동안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몇 년 전부터는 문득 문득 “고향을 위해서 내가 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라는 부채감이 밀려오더라는 것이다.

“굽은 소나무가 선산을 지킨다는 말이 있습니다. 배운 놈들은 다 고향을 떠나고 늙은 개만 남아 끼어 끼어 울고 있다는 말이겠지요. 사실 우리들의 고향 현실이 그러한 풍경과 무관치 않거든요.”

김 씨가 책을 쓰게 된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하다. 고향으로부터 피와 살을 물려받았지만 여태껏 자신은 아무것도 해준 것 없이 “고향을 뜯어먹고만 살았다”는 자괴감이 들었다는 것이다.



하순 운주사의 투박한 석불석탑에는 새로운 세상을 꿈꾸었던 이들의 간절함이 투영돼 있다.

〈안봉주 사진가 제공〉



그렇다면 그가 상징하는 전라도의 모습, 전라도의 본질은 무엇일까.

“전라도는 장기만이 아니라 바둑판입니다. 바둑 앞은 어느 바둑알이든 하는 일이 모두 똑같습니다. 직책도 평등합니다. 하지만 혼자 산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다른 바둑알과 손을 맞잡아야 할 수 있습니다.”

김 씨는 이어 “한마디로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정신과 딱 맞아떨어진다. 바야흐로 인터넷으로 모든 사람이 연결되는 세상이다”며 “더 이상 장기판의 수직적 체계로는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새로운 물결을 견뎌낼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의 말대로 장기는 수직적 조직이며 바둑은 수평 조직(연대)이다. 철학적 질 들뢰즈의 말대로 “장기

가 공간을 ‘코드화’하고 ‘탈코드화’하는데 반해, 바둑은 공간을 ‘영토화’하고 ‘탈영토화’하는 것이다.

저자는 책에서 ‘전라도의 탄생’, ‘타오르는 들불’, ‘거시기 머시기 아리랑’으로 나눠 전라도의 역사와 인물, 문화 등을 조명한다. 여기에는 정여립·전봉준의 의로운 정신, 전라도 토박이말의 감칠맛과 웅숭 깊음 문화 등이 담겨 있다. 또한 판소리 인생 신재효, 매천 황현 등을 통해 선비정신과 예술을 소개하며 ‘오백 년 ‘한 지붕 두 가족’ 전라도와 제주도’에서는 두 지역의 역사적 관계 등을 풀어낸다.

“전라도 사람들이 한양의 중앙권력에 무심했듯이, 전라도사람들도 ‘육지’들에 별 관심 없이 곳 곳하게 살아왔습니다. 바로 그 즐기던 생명력이 지나는 두 전라도 천년을 살아온 버팀목이었던 것입니다.”

특히 책에는 중간 중간 전라도 방언이 담겨 있어 읽는 맛이 쏠쏠하다. 책을 쓰기 위해 문체에 적합한 신경을 썼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는 전라도말 가운데 대표되는 말로 “궁게 말이여~”와 “큘메 마시!”를 꼽는다. “글세, (그러게)말이여” 정도로 해석되는 말은 “상대의 말을 따른 긍정하기도 하고, 때론 부정하기도 하면서, 그 말속에 은근슬쩍 자신의 뜻을 담기도 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전라도 사람의 성격이라는 뜻이다.

책에는 안봉주 사진가의 현장감 넘치는 작품 사진들도 수록돼 있다. 전북사진기자회장을 역임했던 사진가의 작품과 저자의 글맛, 사유가 어우러진 맛은 남다른 울림을 준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남아있는 나날’

매달 한 편씩... 영화로 인문학 만나요

문화공간 ‘천칭자리’ 회원 모집

김성소통을 ‘천칭자리’가 2018 영화로 만나는 인문학 프로그램을 공개했다.

2016년에 시작돼 올해로 3년째 진행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인문학적인 주제의 영화를 함께 보고, 주제강연과 토론을 통해 인간과 세상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자리다.

올해 첫 강좌는 오는 26일 오후 7시에 시작한다. 상징적 죽음 이후의 삶을 나타낸 ‘도쿄 소나타’를 함께 볼 예정이다. 영화 ‘도쿄 소나타’는 가정의 실적으로 벌어진 미세한 틈이 한 가정의 붕괴에 이르는 과정을 치밀하게 담아낸 작품이다.

해고당한 사실을 숨긴 아빠와 아무에게도 관심 받지 못하는 엄마, 세계 평화를 위해 돌연 미군에 입대를 지원한 형, 급식비로 몰래 피아노를 배우는 막내로 구성된 거짓말쟁이 가족에게 찾아온 불협화음이다. 다시 하나의 하모니로 변화하는 과정을 담아내고 있다. 감독은 말없이 식탁에 마주 앉아 아침을 먹는 장면을 통해

가족이라는 이름이 짊어져야 할 절망과 희망의 양면을 보여준다.

3월에는 제임스 아이보리의 ‘남아있는 나날’, 4월에는 우디알렌의 ‘범죄와 비행’, 5월에는 켄 로치의 ‘게스’를 상영한다. 이어 6월에는 루이스 부뉴엘의 ‘비리디야나’를 만날 수 있다.

하반기에는 존 부어맨의 ‘서바이벌 게임’, 카타엘 카코야니스의 ‘소유와 자유’, 아네스 바르다의 ‘이삭줍는 사람들과 나’, 테렌스 맬리의 ‘황무지’, 파울 슈마츠니의 ‘다니엘 바렌보임과 서동시집 오케스트라’가 준비돼 있다.

‘2018 영화로 만나는 인문학’은 매월 넷(셋)째 주 월요일에 열리며 3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회원제로 운영된다. 회비는 1년에 10만 원이다.

‘천칭자리’는 백양사 포교국장을 맡았던 수안스님이 광주시 동구 동명동에 직접 꾸민 복합문화공간으로 2015년에 개관해 각종 공연과 동아리 모임을 진행하고 있다. 문의 010-9802-9985, 010-4660-5792. /전은재기자 e16621@

연극연출가 이윤택 “성추행 법적 책임 지겠다”

기자회견서 혐의 시인

과거 배우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사실이 폭로된 연극연출가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19일 “법적 책임을 포함해 어떤 벌도 달게 받겠다”며 피해자들에게 사죄했다.

이윤택은 이날 서울 명륜동 30스튜디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피해를 본 당사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면서 “정말 부끄럽고 침담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 죄에 대해 법적 책임을 포함해 그 어떤 벌도 달게 받겠다”면서 “가능한 직접 (피해자들을) 만나서 사죄하겠다고 공소시효가 지났다면 다른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책임지겠다)”라고 설명했다.

이윤택은 “일부 연희단 거리패 단원들은 그런 사실을 알고 있었고 끊임없이 항의하고 문제를 제기했다”며 “문제를 제기할 때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매번 약속했지만, 이번이 제 4차 약속을 못 지켜 약속환이 계속됐고 큰 죄를 짓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윤택은 “극단을 18년간 운영하며 관습적으로 일어난 아주 나쁜 형태의 일이었다”면서 “어

떨 때는 나쁜 짓인지 모르고 저질렀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죄의식을 가지면서 제 더러운 욕망을 억제할 수 없었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가능한 직접 (피해자들) 만나서 사죄하겠다”면서 “공소시효가 지났다면 다른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책임지겠다)”라고 말했다. 이윤택은 “저는 더 이상 연극을 할 수 없을 것 같다”며 밀양연극촌과 밀양연극축제에서도 손을 떼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연극계 선배들에게도 사죄하며 저 때문에 연극계 전체가 매도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성추행도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며 “성관계 자체는 있었지만 폭력적이고 물리적인 방법으로 강제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는 “SNS에 올라온 주장 중에는 사실이 아닌 것도 있다”면서 “이 문제를 여기서 끝까지 부하거나 진위를 밝힐 수는 없어 법적 절차가 필요하며 사실과 진실이 밝혀진 뒤 그 결과에 따라 응당 처벌받아야 한다(처벌) 받겠다. 사실과 진실에 따라 모든 것이 심판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Aroma Life
www.aroma-life.co.kr

! ‘건강’과 ‘아름다움’을 모두 갖춘 !

맞춤형 기능성 속옷의 명가

아로마라이프

아로마라이프 기능성 속옷은 한국, 미국, 일본, 중국 특허를 받은 유니크한 디자인과 일본 도레이社 LYCRA (별단면속각형)사용 및 특수 물질가공(원적외선, 음이온효과)으로 편안한 착용감과 생리적인 불편함을 해결해 주고 건강을 생각하는 속옷입니다.

<p>아모리이온</p> <p>브라+슈트+거들 4개국 특허 3단 일체형 슈트</p>	<p>아모리이온 롱바디</p> <p>브라+슈트+거들+레깅스 4개국 특허 4단 일체형 슈트</p>	<p>아실리 바디슈트</p> <p>블랙은사 바디슈트의 은사 레이스 품명회 1등</p>	<p>비비드 아모르</p> <p>러닝+팬츠 2단 일체형 남성용 슈트</p>
--	--	--	--

대표전화 1588-2219